

회원사 소식

넥센타이어

◎ 넥센타이어, 이탈리아 볼로니아 자동차 전시회 참가

넥센타이어는 이탈리아의 볼로니아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AUTOPROMTEC 자동차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부품, 타이어, 휠, 자동차 정비 장비, 모터스포츠 관련 제품 등 총 1천404개 업체가 전시 참가하고 10여 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미래의 자동차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자리로 펼쳐졌다.

넥센타이어는 휠, 타이어 관련 정비업체 섹션에 4면이 모두 타이어 제품으로 둘러싸인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넥센의 신제품과 전략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초고속 주행용제품인 Asymmetric UHP N6500, Max Performance New 패턴과 차세대 기술개발제품인 Run-flat 타이어, 겨울용 제품인 Winguard UHP, New Studless Winter 및 중국시장용 High Performance New 패턴 등의 출시 예정제품과 N3000 22inch · Roadian HP 24, 26, 28inch 등 고인치 타이어를 전시 함으로써 차세대 기술력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 열정의 '2007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국내 유일한 최대 규모의 RV/SUV 온로드 자동차 경주 대회인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2·3·4차전이 지난 6, 7, 8월 연달아 개최됐다. 무쓰, 소렌토, 코란도, 스포티

지, 렉스턴 등 순정 차량부터 무한개조된 차량까지 RV/SUV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은 올해 총 6회 경기가 치러질 계획이다.



매 경기마다 뜨거운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화끈한 경기가 펼쳐졌으며, 힙합 및 비보이 댄스대회, UCC 경연대회, 모터스포츠의 상징인 포뮬러카 전시를 비롯하여 드리프트 시범주행 및 체험, 레이스차량 동승 서킷 주행 포뮬러카 전시 등 뜨거운 레이싱 열정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넥센타이어는 'RV 챔피언십을 세계적인 대회 못지않은 국내 대표 RV 레이스로 브랜드화해 가겠다'며 "남은 경기에서 더욱 새롭고 기발한 이벤트를 통해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넥센타이어, 한터배와 도모스포츠클럽 등 각종 스포츠 대회 우승 행진

넥센타이어는 지난 5, 6월 경상남도 일원에서 펼쳐진 각

종 스포츠 대회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먼저 (주)한티종합건설이 주최하고 국제신문이 특별 후원한 제 11회 한티배 직장축구대회 1부에서는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부산 경남지역 직장인 아마추어 총 64개 팀이 출전하여 예선 조별 리그를 시작으로 결승에 이르기까지 장장 50일간에 걸친 대장정으로 치러졌다. 이어 지난 5월 3일~6일 경남 창원시 일원에서 펼쳐진 경남도민체전에 참가해 축구 종목에서 3위에 입상했으며, 6월 6일에 펼쳐진 도모스포츠배 초청 친선 축구대회에서는 우승의 기쁨을 맛보았다.

또한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2007 족구 활성화 전국 최강전에서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6월 17일 개막된 제12회 국민생활체육 경남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서는 일반부 우승을 차지하며 축구와 더불어 족구에서도 최강의 면모를 지켰다

넥센타이어는 연이은 우승 행진에 대한 대내외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후 회사 차원에서 사원의 체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 넥센타이어배 제2회 카메니아 카트챌린지 대회 개최

제2회 넥센타이어배 카메니아 카트챌린지 대회가 지난 6월 3일 잠실 탄천 카트장에서 열렸다. 약 100여개 동호회 150명의 선수 및 700여명의 갤러리가 참여한 이번 대회는 레이싱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는 예선 8명씩 1개조를 구성하여 상위 3위까지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넥센타이어의 최고급 타이어 1세트, 트로피, 우승 모자가 주어졌다.

대회 시상을 맡은 넥센타이어 내수영업본부 최재곤 상무는 카티비와의 인터뷰에서 “UHP 시장의 타겟층인 동호

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며 동호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 에너지 절약 실무 협의회 개최

에너지 절약을 위한 ESP(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화학과 실무회의가 지난 6월 21일부터 양일간 넥센타이어 양산 본사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동양제철화학, 삼양화학 등 화학과 회원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에너지 절약 기술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실증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한편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 ‘벤투스 V12 evo’ 출시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13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초고성능 스포티 타이어인 ‘벤투스 V12 evo’를 출시하고 신제품 런칭 시승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고객사와 자동차 동호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제품 발표와 함께 시승행사, 비보이 공연, 미니 레이싱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벤투스 V12 evo’는 ‘벤투스 Sports K104’를 대체할 신제품으로 성능과 디자인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 5년 만에 출시됐다. 튜닝과 스포티한 운전을 즐기는 20~30대 젊은 고객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내 시장에 우선 출시 후 북미, 유럽 등 전세계 지역에 선보일 예정이다. 타이어 규격은 올해 15~18인치까지 운용되며, 내년까지 22인치를 출시할 계획이다.



‘벤투스 V12 evo’는 스포티한 운전을 즐길 수 있도록 레이싱 타이어에 사용되는 특수 고무 수지를 첨가해 접지력을 높였으며, 내부에 고무도 나일론 보강벨트를 적용해 코너링 시 안정감을 보강했다. 또,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이어 제조 원료인 실리카 컴파운드를 사용해 젖은 노면에서의 주행성능과 내마모, 연비성능도 개선했다. 디자인은 최근 유럽 튜닝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블록형 패턴을 적용했다. 빗물이 잘 빠져나가기도록 타이어 표면에 넓은 직선형 홈과 ‘Y’ 모양의 패턴을 새겨 넣었으며, 균일하고 등근 접지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수막현상을 최소화시켰다

◎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 본격 가동

한국타이어의 5번째 생산기지인 헝가리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유럽 시장 공략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26일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에 위치한 헝가리 공장에서는 서승화 대표이사 사장 진승도 구주본부장, 조현식 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해 야노스 코카(Janos Koka) 헝가리 경제교통부 장관 주 헝가리 엄석정 대사 등 5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어 생산 개시를 축하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 헝가리공장에서는 연간 12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이며, 공장이 완공되는 내년 3월에는 연간 500만

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헝가리공장이 가동되면서 1개월 이상 걸리던 유럽지역 배송시간이 5일 이내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약 5억 유로를 투입하여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간 헝가리공장은 앞으로 2010년에는 연간 생산량 1,000만 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소형 승용차용 타이어인 ‘옵티모K715’와 중대형 세단용 타이어인 ‘옵티모 K415’에 한정되지만 향후에는 UHP타이어, 트럭용 타이어 등으로 생산 제품 군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옵티모 K715’는 지난 2월 독일 최고 권위의 공산품 평가 기관인 ‘슈티프퉁 바렌테스트’가 실시한 테스트에서 전체 15개 제품 중 2위를 차지한 제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데 있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 한국타이어, 중국시장 진출 10주년과 시장점유율 1위

5월 18일 한국타이어 중국 강소공장은 서승화 사장, 김휘중 연구생산기술본부 사장, 최진욱 중국지역본부 부사장, 덩 지에밍 중국 공산당 화안시위원회 서기, 반 진룡 화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진출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996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한국타이어는 중국공장 가동 4년만인 2003년에 미쉐린, 굿이어 등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를 제치고 승용차용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했다. 한편, 지난 2006년에는 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약 34%의 매출 성장을 보였다. 이렇듯 중국 진출이 성공한 이유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자동차 메이커의 OE 판매기반을 확보한 데 있다.

올해 중국 진출 10주년을 맞은 한국타이어는 지속적인 설비증설을 통해 승용차용 타이어뿐 아니라 전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공장에서 생산

했으며, 이번 고무공장의 건설로 금호타이어는 자체 조달을 통해 원재료 급등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호타이어, 럭셔리 프리미엄 타이어**

‘ECSTA LX platinum’ 출시

금호타이어가 외산차의 수요 증가 및 자동차의 고급화, 고성능화 추세에 맞춰 럭셔리 프리미엄 타이어 ‘ECSTA LX Platinum’을 출시했다. ECSTA LX platinum은 기존의 프리미엄급 타이어인 ECSTA DX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매력적인 스타일과 편안한 승차감, 정숙성이 돋보인다. 특히 이 제품은 타이어가 지향하는 조종안정성, 배수성, 제동력, 승차감 등 각 기능을 부분별로 역학적으로 분석, 접지면이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좌우측 형상을 다르게 디자인한 IN-OUT 타이어다.

금호타이어의 자체 비교테스트에 따르면 ECSTA LX Platinum은 젖은 노면에서의 핸들링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내마모성이 일반 UHP타이어에 비해 10%가량 더 성능이 우수하다. 승차감, 정숙성, 내마모성 등에서도 기존제품뿐 아니라 수입제품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CSTA LX platinum은 이달 말 16~18인치 8개 규격이 우선 출시되며, 10월까지 15인치와 19인치 등 총 35개 규격이 출시될 예정이다.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날 정성원 대표이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변화로 끊임없는 성장을 하여 보다 발전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스케치북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사표어 공모전 당선자 발표**

스케치북 제안제도(Sketchbook Suggest)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6월27일부터 7월11일까지 진행된 전사표어 공모전에서 정려반의 '원가절감 자원극복! 제안으로 거듭나자!'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금번 공모전에는 총 330건의 제안 표어가 접수되어 최우수상1건, 우수상2건, 장려상3건, 재치상20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 **EPR. MES시스템 도입, 킷 오프**

2007년 7월 3일 (주)흥아 본사 강당에서 ERP. MES시스템 킷오프가 행해졌다.

이날 킷오프로 10개월 동안 시행될 금번 프로젝트는 업무의 효율화와 영업판매에서 자재구매 재고, 생산 원가, 회계에 이르는 정보의 흐름의 일관화,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흥아

◎ **제56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2007년 6월13일 (주)흥아 본사 강당에서 제56주년 창립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립기념일을 기념하여 공로상, 모범상, 개근상 등의 수상이 진행되었고, 양산상공회의소에서도 (주)흥아의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